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제목 : 날이 새어갈 때

성경: 요한복음 21장 1-11절

Tag:

1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2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3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대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 날 밤에 아무 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4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5 예수께서 이르시되 애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6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7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걸음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 내리더라

8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오십 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9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10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11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 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백순제 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요21:1-11)

요한복음 21장은 요한이 죽은 다음에 요한의 제자들이 기록했을 것

이라는 견해가 있다. 당시에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갈망이 컸던 시기였고, 요한이 죽기 전에 예수님이 재림할 거라는 소문이 자자했던 터라 요한이 죽었지만, 여전히 예수님께서 재림하지 않음에 대한 해명이 필요했었다.

정작 요한도 내심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을 했을지? 모른다.

이런 오해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때문이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요한이 죽기 전에 다시 오겠다는 확증적인 말씀을 하지는 않으셨다. 다만 베드로가 예수님으로부터 자신의 미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받자, 대뜸 요한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궁금했다. 왜 궁금했는지는 모르지만, 아마도 요한에게 미안했을지 모른다. 자기만 예언을 받고, 요한에게는 아무 말씀 없으니까, 대신 물어보았을지 모른다.

그런데 예수님은 의외의 대답을 하셨다. 왜 그것이 궁금하느냐?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나’ ‘혹 요한이 죽기 전에 내가 재림 한다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말씀이다. 요한은 당시 나이가 제일 어렸고, 그는 오래 살았다.

그래서 이 말씀이 와전되어 요한이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이 돌았지만, 정확하게는 꼭 그런다는 의미는 아니기때문에 재림에 대한 소망에 대해 의심하지 말라는 당부의 말씀을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복음 말미에 기록하였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베드로와 요한 이야기가 등장하게 된 그 날 아침에 일어난 사건에 대한 기록이다.

베드로와 몇몇 제자들은 베드로의 고향에 머물고 있었다. 아마도 다들 텅빈 마음이었을 것이다. 몇 년동안 예수님을 따라 여러 가지를 배우고 수많은 기적을 맛보며 흥분과 감동 가운데 지냈지만, 이제 예수님은 가끔씩 나타나는 분이 되셨고 이후 언제 다시 나타날지는 아무도 모른다.

아직은 부활 이전과 부활 이후의 삶에 대해 적응을 하지 못한 셈이다.

부활 이전에는 서로 만나면 누가 영의정이니, 누가 우의정이니 하는 다툼까지 했는데, 이제 정권욕은 물건너 갔다. 사실 애초부터 계획에 없는 정권 욕심이었다.

뭔가를 간절히 바랐고, 그 소망 때문에 신바람이 났었는데, 이제 그 소망은 물거품처럼 사라졌다. 얼마나 허망했을까? 기운이 빠졌다. 의욕을 상실한다. 정신이 나가고 멍한 상태가 되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세속적인 성공에 대한 환상 가운데 빠진다. 십자가 이전의 제자들처럼. 그래서 예수님의 많은 말씀을 성공신학으로 해석한다. 예전에도 많은 사람들이 성경 말씀에서 성공신학적 모티브가 되는 말씀들을 추출해서 송판에 새겨서 벽에 걸어놓곤 하였다. (네 시작은 미약 하였으나 네 나중은 창대하리라!)

사실은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면 갈릴리로 가라는 예수님의 명령은 머리 속에서 사라진 상태다. 아무도 갈릴리로 돌아가야 한다는 예수님의 명령은 생각하지 않았다.

부활을 경험했어도 그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다. 부모를 잃은 자녀처럼 그들은 정신이 나갔다. 그런 채 며칠을 보낸 셈이다.

사실은 부활의 아침을 경험하고, 부활의 저녁에 예수님을 뵈었으면 즉시 갈릴리로 내려 갔어야 했다. 그러나 그들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여전히 예루살렘에서 꿈짜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자 어느 순간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 생각나서 각자 갈릴리로 내려갔다. 베드로도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베드로와 도마와 세베대의 아들들과 나다나엘과 또 다른 제자 둘은 아마도 요한과 빌립이었을 것이다.

왜냐면 이들은 요한복음 처음에 등장한 인물들이었기 때문이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열추 부활 이후 10여일이 지났을 것으로 여겨지는데, 십여일 동안 그들은 자신들의 허무맹랑한 정권 야욕을 정리했을 것이다.

세속적인 욕심이 빠져나가자 현실감이 살아났다. 이대로 멍하게 하늘만 바라보고 살 수는 없는 노릇이다.

베드로는 과거 어부의 생각으로 돌아갔다. 어느 순간 정신이 들었고, 다시금 어부의 본능이 작동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아차 이려고 있을때가 아니지. 지금쯤 물고기가 많이 잡힐 때인데 빨리 서둘러 바다로 나가야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네...

나머지 제자들도 순간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그래, 나도 물고기 잡으러 가야겠어, 같이 잡시다...

4절에 보면

4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날이 새어갈 때’라는 표현이 나온다. 뭔가 새로운 새벽이 되었다는 느낌이 든다.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는 아침이다. 제자훈련 시즌2가 시작되는 새벽이다.

베드로와 예수님 사이에는 물고기 이야기가 또 있다. 요한복음에 의하면 베드로는 형제 안드레의 전도 때문이다. 예수님은 그를 베드로라 부르겠다고 하셨다.

얼마 후 베드로가 고기를 잡고 있을 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심방 하셨고, 그 배 위에서 전도 하셨다. 그리고 배를 저어 깊은 곳으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 하셨다. 베드로는 무뚝뚝하게 반응하였으나 아무튼 순종은 했다. 그랬더니 이루 말 할 수 없을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혔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발 앞에 순복하며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

니다. 하고 고백하였다. 이때도 예수님은 베드로가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고 예언하셨다.

'트리플 큐브 넘버란 각자리 수를 각가 세제곱해 더한 값이

원래 자신의 수가 나오는 수를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첫 번째 콜링과 비슷한 구조인데, 베드로는 이 사건으로 두 번째 콜링을 받는 셈이 되었다. (이 사건을 베드로만을 위한 사건이었다.)

어부였다고, 영의정을 꿈 꾸다가 다시 어부가 되었고, 다시금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첫 번째 만났던 때와 오버 랩 되는 사건을 경험하면서 순간적으로 엄청난 정신적-영적 충격에 빠지게 된다. 베드로는 고집이 세고 주관이 뚜렷하다. 그러나 영도력이 있기에 예수님은 그를 불렀다. 베드로는 이제 두 번째 자신의 생각을 바꾼 셈이다. 두 번째 시즌이 시작되는 아침이었다.

예수님으로서도 두 번째 제자훈련이 시작되는 순간이다.

이전의 제자훈련은 수많은 군중들을 전도하면서 실시되었지만, 이제 는 오직 핵심 제자들만 참여하는 제자훈련이다.

이전에는 정권야욕에 정신이 팔려 예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제는 다르다.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게 되었다.

오늘 본문 이후에는 특별히 베드로에게 개인적인 예언까지 하셨다. 오직 너 만은 이런 사역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그 때가 오면 망황하지 말고 너의 길을 가거라.

물론 여전히 이후에 제자들의 발목을 잡는 생각은 재림이었다. 그 때문에 교회는 지금도 발목이 잡히고 있다. 재림에 집중하다 보니 재림 이전에 해야 할 사명을 망각하게 된다. 사명이 완성되면 재림하실 것이다. 당연한 수순 아닌가?

그러나 교회가 해야 할 과제는 뒤로하고 오직 재림에 목을 매는 것은 사탄의 방해공작에 불과하다. 제대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오늘날에도 세상은 급변하고 있다. 현재 교회는 어떤 도전을 받고 있는가? 교회는 어떤 응전을 해야 하는가?

교회는 시대적 흐름에 끌려 다니지 말고, 시대를 리드해야 한다. 재림에만 매달리지 말고, 계시를 받고,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

재림은 분명히 실현된다. 그러나 그 때와 시기에 집중하지 말고 지금 내가 해야 할 사명에 집중해야 한다. 그 때와 시기는 아무도 모른다고 명백하게 선포 하셨는데, 왜 그 시기에 집중하는가? 그것은 마귀에게 시간을 빼앗기는 것이다. 마귀에게 속는 것이다.

그러면서 해야 할 사명은 망각한다.

교회는 영적전쟁에서 승리해야 한다.

교회는 제자훈련을 지속하면서 세상을 리드할 수 있어야 한다.

개인적으로도 자신에게 어떤 사건이 있는지, 어떤 변화가 있는지 알아차려야 한다. 시즌이 바뀌었어도 옷을 갈아입지 않으면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렵다. 주께서 내게 어떤 사명을 주시는지 깨달아야 한다. 여러분의 앞날을 축복합니다. 잘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찬양예배〉

제목 : 시즌 체인지 성경: 다니엘 7장

Tag:

1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리 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2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의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3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4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5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잇사이에는 세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6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7 내가 밤 환상 가운데에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의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열 뿔이 있더라

8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의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9 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10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이

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민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11 그 때에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12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13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14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15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리 속의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16 내가 그 곁에 모셔 선 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 주며 이르되

17 그 네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이라

18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19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놋이니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20 또 그것의 머리에는 열 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세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류보다 커 보이더라

21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22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 주셨고 때가 이르매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23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24 그 열 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 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세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25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인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26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27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인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28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열굴뚝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단7:1-28)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마스터플랜이다.

다니엘 시대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물론 다니엘 사후의 시대를 예언한 것이다.

세명의 큰 왕이 일어날 것이다.

7 내가 밤 환상 가운데에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밟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의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열 뿔이 있더라

7절 이후의 왕은 로마의 황제이다.

25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인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26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यो

27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
룩한 백성에게 붙인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
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28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
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단7:1-28)

25절;

- 하나님을 말로 대적하는 자가 나타난다.
- 성도들을 괴롭히는 때가 온다.
- 통치자는 때와 법을 고치려고 할 것이다.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창조와 진화시간 늘리기, 환경법으로 인간을 통제하려는 시도 등.
탄소배출 세금-탄소세-신종환경세-환경론자들을 위한 세금-그들의
먹거리)
- 성도들은 3.5때를 지나도록 그에게 붙인 바 되리라.

26절;

- 심판이 시작된다.
- 그는(성도를 괴롭히는 자) 권세를 빼앗기게 된다.
- 그는 완전히 멸망할 것이다.

27절

- 나라, 권세, 온 천하 나라들 위세가(세계적 여론, 민심, 물결)
- 지극히 높으신 이의
- 거룩한 백성에게 붙인 바 되리라.
- 모든 권세자들이 하나님을 섬기리라.

28절;

- 번민하는 다니엘 (근심, 우려, 앞 일에 대한 지혜가 없는 상태)
- 얼굴 빛이 변하는 다니엘 (새로운 결단, 새로운 세계를 향한 기대)

-계시를 마음에 간직하는 다니엘

시른 체인지가 무엇인지 깨닫고, 자신의 태도를 바꾸며, 자신의 인생 방향을 바꾸며, 자신의 가치관을 재정립하며, 미리 변화될 세상을 준비하며 받아들이는 다니엘.